



[르포]
삼성전자 음향혁신
美 발렌시아 오디오랩
가보니
03



Economy

코스피 2229.26 (+22.87)	코스닥 679.22 (+6.19)
금리 (미국 3년) 1.42 (-0.01)	환율 (원-달러) 1156.00 (-5.30) (13일)

20억 무슬림 잡아라 K팜, 80조 할랄 공략

국내계약사, 잇따라 이슬람 진출
복잡한 할랄 인증에도 공략 분주
성장성, 중동 진출 교두보 기대감
중근당, 인니 현지서 항암제 생산
대웅제약도 에포디온 생산·판매

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허가를 준비 중인 삼피세포성장인자, 성장호르몬 제제 케어트로핀 등 현지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보툴리눔독소신제제 '나보타' 역시 할랄 시장으로 진출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네시아에서 나보타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올해 상반기 중 발매를 준비 중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제약사인 컴비파사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완공했다. 동아에스티는 현재 인도네시아 생산 공정에 대한 평가 과정을 거쳐, 내년 부터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제 에포토프와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류코스팀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1위 제약사 칼베와 계약을 맺고 위식도역류질환 케이캡정을 공급하고 있다. 씨제이헬스케어는 앞으로 5년간 인도네시아에 케이캡정 완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는 진입 장벽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할랄 인증을 받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의약품 유통, 판매하려면 생산 설비를 갖춘 현지 회사와 협력을 통해 현지 제조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과정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인구 규모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수가 약 2억 7000만명의 달하며, 제약시장 규모는 오는 2023년 약 13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메리트다.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올해 19억명으로, 전체 4분의 1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중심으로 투자될 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의약품원료 제조시장이 외국인에게 개방되고, 국민건강보험 시행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출국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장관이 13일 한미외교장관회담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력 유출, 일감도 뚝’ 중소기업, 고사위기

회계감사 시각변동

〈중〉 중소기업 회계법인의 위기

감사인 등록제 인원수 제한 따라
중소형 법인 간 합병 불가피할 듯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이하 주기적 지정제)로 중소기업 회계법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중소기업 회계법인의 인수합병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업무를 '지정'받기 위해선 회계법인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수가 40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회계법인은 주기적 지정제로 일감과 인력을 뺏길 위기에 처했다.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거나 회계법인 간 '짜집기'를 통해 덩치를 키워야 하는 이유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상생방안을 마련 중이다.

13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회계법인 간 합병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한길과 두레, 성신회계법인의 합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중소기업회계법인 합병을 통해 총 11개 회계법인이 탄생했다.

김석민 중소기업회계법인협회 회장은

〈합병완료 (22개 회계법인→11개 회계법인 존속)〉

회계법인명	합병 내용	합병 후 소속CPA수 (2019.6. 현재)
한길	2018.11.1.(한길+두레), 2018.12.31.(한길+성신) 합병등기	59명
상지원대안	2019.1.15. 합병등기(상지원+대안) (대안 해산)	22명
성도이현	2019.3.29. 합병등기(성도+이현) (이현 해산)	130명
광고	2019.3.29. 합병등기(광고+천지) (천지 해산)	48명
세일원	2019.3.29. 합병등기(세일+원) (원 해산)	45명
신승	2019.4.1. 합병등기(신승+유진) (유진 해산)	70명
선일	2019.4.15. 합병등기(선일+승일) (승일 해산)	38명
예교지성	2019.4.16. 합병등기(예교+지성) (지성 해산)	58명
이정지울	2019.4.18. 합병등기(이정+지울) (지울 해산)	53명
동아송강	2019.4.30. 합병 등기(송강+동아) (동아 해산)	58명
인덕	2019.5.27. 합병 등기(인덕+바른) (바른 해산)	92명
참	2019.7.9. 합병 등기(참+명일) (명일 해산)	47명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난해 처럼 활발한 합병은 없었지만 감사인 등록제가 인원수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올해도 중소기업회계법인 간 합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일감 따내려' 인수·합병

지난해부터 중소기업회계법인 간 합병은 가속화됐다. 주기적 지정제 도입에 따라 감사 업무를 지정받기 위해선 최소 40명 이상 공인회계사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른바 감사인 등록제다.

감사인 등록제는 규모별로 600명 이

상 공인회계사를 보유한 회계법인을 대형, 120명 이상 중견, 60명 이상 중형, 40명 이상을 소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회계법인 규모별로 감사 일감을 나눈다. 회계법인 규모가 클 수록 자본이 큰 기업의 일감을 따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합병을 통해 규모를 늘린 성도이현 회계법인이 중견으로 분류, 인덕회계법인이 중형 회계법인으로 구분돼 지정 감사업무를 맡을 수 있게됐다.

〈4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중근당 인도네시아 CKD-OTTO사 항암제 공장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

車보험료 이달 말부터 최대 3.5% 오른다

29일 KB손보, 3.5% 인상
내달 현대해상 등 4곳 올려
중소 손보사들도 동참할 듯

이달 말부터 자동차보험료가 3.3~3.5% 인상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29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3.5% 인상한다. 다음 달 초에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다른 '빅4' 손보사가 각각 3.5%, 3.4%, 3.3% 올린다.

대형사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서면서 중소 손보사들도 보험료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험료 인상 때에는 유독 우여곡절이 많았다. 인상률을 낮추려는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도 개선에 따른 인하 효과(1.2%)를 반영하는 한편 업계가 자구 노력을 더 하기로 하면서 최대 인상률이 3.5% 수준으로 정리됐다.

업계는 이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의 적자 규모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은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1월 영업적자가 이미 1조

2938억원인데 사상 최고를 보인 12월 손해율을 고려하면 연간 영업적자가 역대 최대인 1조 5369억원(2010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손해율을 보면 가마감 기준으로 삼성화재(100.1%), 현대해상(101.0%), DB손보(101.0%), KB손보(100.5%) 등 대부분 손보사가 100%를 웃돌았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김희주 기자 hj89@